

인문계열 수학, 자연계열 국어가 당락 변수

■ 국어·수학 표준점수대별 누적인원(하위점수 일부 생략)

표준점수	국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계	누적(계)	표준점수	계	누적(계)	표준점수	계	누적(계)	
140	777	777	134	893	893	149	661	661	
138	1,529	2,306	133	11	904	147	5	666	
137	1,085	3,391	132	116	1,020	146	39	705	
136	1,669	5,060	131	2,278	3,298	145	1,280	1,985	
135	3,073	8,133	130	45	3,343	144	7	1,992	
134	2,139	10,272	129	519	3,862	143	131	2,123	
133	4,461	14,733	128	4,804	8,666	142	2,389	4,512	
132	3,343	18,076	127	5	8,671	141	1	4,513	
131	5,206	23,282	126	173	8,844	140	42	4,555	
130	4,950	28,232	125	7,653	16,497	139	422	4,977	
129	5,389	33,621	124	38	16,535	138	4,037	9,014	
128	6,030	39,651	123	373	16,908	137	90	9,104	
127	5,774	45,425	122	2,698	19,606	136	919	10,023	
126	6,729	52,154	121	6,945	26,551	135	5,677	15,700	
125	6,385	58,539	120	961	27,512	134	19	15,719	
124	6,978	65,517	119	3,994	31,506	133	213	15,932	
123	7,046	72,563	118	5,705	37,211	132	1,891	17,823	
122	7,171	79,734	117	289	37,500	131	7,050	24,873	
121	7,580	87,314	116	6,402	43,902	130	46	24,919	
120	7,522	94,836	115	3,878	47,780	129	3,623	28,542	
119	7,767	102,603	114	689	48,469	128	7,623	36,165	
118	7,522	110,125	113	2,544	51,013	127	116	36,281	
117	7,852	117,977	112	4,424	55,437	126	922	37,203	
116	7,955	125,932	111	3,501	58,938	125	4,542	41,745	
115	7,826	133,758	110	3,176	62,114	124	7,190	48,935	
114	7,931	141,689	109	3,430	65,544	123	241	49,176	
113	8,054	149,743	108	1,421	66,965	122	7,464	56,640	
112	7,986	157,729	107	1,944	68,909	121	6,257	62,897	
111	8,134	165,863	106	5,446	74,355	120	581	63,478	
110	8,045	173,908	105	1,350	75,705	119	2,791	66,269	
109	8,091	181,999	104	2,306	78,011	118	6,305	72,574	
108	8,079	190,078	103	2,566	80,577	117	4,566	77,140	
107	8,120	198,198	102	1,497	82,074	116	1,208	78,348	
106	8,140	206,338	101	4,016	86,090	115	10,379	88,727	
105	8,257	214,595	100	1,861	87,951	114	3,234	91,961	
104	8,193	222,788	99	1,328	89,279	113	2,206	94,167	
103	8,066	230,854	98	1,856	91,135	112	5,223	99,390	
102	8,028	238,882	97	3,271	94,406	111	5,222	104,612	
101	8,021	246,903	96	1,457	95,863	110	2,396	107,008	
100	7,959	254,862	95	1,837	97,700	109	3,751	110,759	
99	8,008	262,870	94	1,512	99,212	108	5,517	116,276	
98	7,836	270,706	93	1,230	100,442	107	6,544	122,820	
97	7,773	278,479	92	3,090	103,532	106	5,037	127,857	
96	7,736	286,215	91	1,216	104,748	105	4,357	132,214	
95	7,735	293,950	90	1,362	106,110	104	2,747	134,961	
94	7,552	301,502	89	1,497	107,607	103	4,121	139,082	
93	7,548	309,050	88	1,301	108,908	102	5,006	144,088	
92	7,281	316,331	87	2,715	111,623	101	3,041	147,129	
91	7,341	323,672	86	1,381	113,004	100	8,329	155,458	
90	7,232	330,904	85	1,164	114,168	99	3,579	159,037	
89	6,956	337,860	84	1,437	115,605	98	3,193	162,230	
88	6,962	344,822	83	2,626	118,231	97	4,635	166,865	
87	6,742	351,564	82	1,350	119,581	96	3,991	170,856	
86	6,581	358,145	81	1,450	121,031	95	3,172	174,028	
85	6,506	364,651	80	1,276	122,307	94	4,475	178,503	
84	6,291	370,942	79	1,254	123,561	93	7,683	186,186	
83	6,190	377,132	78	2,753	126,314	92	4,351	190,537	
82	5,998	383,130	77	1,212	127,526	91	4,690	195,227	
81	6,059	389,189	76	1,392	128,918	90	3,516	198,743	
80	5,481	394,670	75	1,419	130,337	89	4,254	202,997	
79	5,454	400,124	74	1,187	131,524	88	5,035	208,032	
78	5,473	405,597	73	2,629	134,153	87	3,651	211,683	
77	5,133	410,730	72	1,146	135,299	86	9,265	220,948	
76	4,999	415,729	71	1,354	136,653	85	4,086	225,034	
75	4,722	420,451	70	1,277	137,930	84	4,395	229,429	
74	4,678	425,129	69	2,560	140,490	83	5,243	234,672	

■ 평가원 채점 결과 공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공개에 따라 대입 정식 모집도 본격화됐다. 올 수능 채점 결과 '불수학'이라 불릴 정도로 수학 영역의 난도가 높는데다 국어도 변별력을 충분히 갖추면서 인문계열은 수학, 자연계열은 국어가 정식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3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국어 영역의 1등급 컷라인(컷)은 131점이며 수학 가형은 128점, 수학 나형은 135점이었었다.

지난해 국어 영역 1등급 컷이 132점, 수학 가형이 126점, 수학 나형이 13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어는 1점 떨어지고 수학은 가형이 2점, 나형이 5점 오른 것이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작년 역대급 '불수학'을 유발한 국어 150점에 육박해 '불수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학 나형 최고점자(만점자) 비율 역시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4번째로 낮은 0.21%를 기록하는 등 까다로

수학 나형 1등급내 14점 차이

탐구영역 선택과목 따라 점수차
재수생 강세 올해도 계속될 듯

왔던 난도를 입증했다.

국어는 표준점수 만점자 비율의 경우 0.16%로 지난해 수능(0.03%)보다 높았으나, 만점자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충분했다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입의 성패는 국어와 수학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과생 변별력은 국어와 수학이 가르치고, 이과생 변별력은 국어와 과학탐구에서 크게 갈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인데 1등급 컷이 135점이어서 1등급 안에서 최대 14점까지 차이가 나고 1·2등급의 점수 차도 크다"면서 "수학을 2등급 맞은 학생은 국어를 아무리 잘 봐어도 수학 점수 차를 극복

■ 국어·수학 등급별 표준점수

등급	국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등급	인원(명)	비율(%)	등급	인원(명)	비율(%)	등급	인원(명)	비율(%)
1	131	23,282	4.82	128	8,666	5.63	135	15,700	5.02
2	125	35,257	7.30	122	10,940	7.11	128	20,465	6.55
3	117	59,438	12.30	118	17,605	11.44	118	36,409	11.64
4	107	80,221	16.61	110	24,903	16.18	106	55,283	17.68
5	95	95,752	19.82	97	32,292	20.99	92	62,680	20.05
6	83	83,182	17.22	82	25,175	16.36	81	53,085	16.98
7	72	56,941	11.79	70	18,349	11.93	75	37,155	11.88
8	64	32,537	6.74	63	10,775	7.00	71	21,165	6.77
9	64미만	16,458	3.41	63미만	5,164	3.36	71미만	10,720	3.43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의 난도에 또 다시 널뛰기 현상이 나타나 입시에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사회탐구는 경제(72점)와 윤리와사상(62점)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가 10점에 달했고, 과학탐구는 지구과학 I(74점)과 물리 I·지구과학 II(66점)의 차가 8점이 나 났다. 여기에 재수생 강세도 정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작년 불수능 여파로 수능을 치른 졸업생 비중이 크게 늘었고, 이들의 성적 역시 재학생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올 수능 응시자 48만 4737명 중 졸업생은 13만 6972명(28.3%)으로, 국어와 수학 가·나형 등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의 1·2

등급 비율과 표준점수 평균이 재학생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 영역의 졸업생 표준점수 평균은 109.6점으로 재학생(97.1)보다 12.5점이 높았고, 1등급 비율도 졸업생이 8.9%로 재학생(3.4%)보다 월등히 높았다.

수학 가형의 졸업생 표준점수 평균도 106.6점으로 재학생(97.2점)보다 9.4점 높은 데다, 1등급 비율 역시 졸업생이 10.8%로 재학생(4.3%)을 훌쩍 뛰어넘었다. 수학 나형 역시 1등급 비율이 졸업생과 재학생 각각 12.2%, 4.6%로 차이가 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상위권 대학 입시에 재수생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 수능도 어김없이 '아랍어 로또'

1번만 다 찍어도 4등급

올 수능에서도 어김없이 '아랍어 로또' 현상이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 중 아랍어[의]의 정답과 채점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의 정답을 1번으로 '찍었을' 경우 원점수 13점(표준점수 50점)을 얻어 4등급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정답을 3번으로 '찍으면' 원점수 11점으로 5등급, 5번으로 '찍어도' 원점수 10점으로 5등급이었다. 2번이나 4번으로 하면 원점수 8점으로 6등급이었다.

아랍어는 13점만 받아도 4등급이지만, 다른 제2외국어 과목은 원점수 13점이면 5~7등급이었다.

아랍어는 매년 되풀이되는 '로또' 현상 탓에 허수 응시생이 많아 평균 점수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 다른 수험생보다 1~2문제만 더 맞혀도 표준점수가 높게 나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올해 제2외국어/한문에서 아랍어를 택한 응시자는 72.3%(4만 707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 때문에 내년이 '아랍어 로또' 마지막 수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

평가원 "수능 성적 조회한 수험생 불이익 주지 않을 것"

수능 성적이 사전 유출된 사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성적을 미리 조회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능 성적을 발표 2~3일 전 사전 조회한 312명의 수험생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원장은 "조사 후 자문이나 법적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수능 시험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밤 9시 56분부터 2일 새벽 1시 32분까지 3시간 36분 동안 수능 응시생 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접속해 본인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4 달뜨기 13:11
해질 17:20 달침 21:20

밤부터 기온 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3/11	보성	구름많음	0/11
목포	구름많음	6/10	순천	구름많음	3/12
여수	구름많음	5/11	영광	구름많음	4/10
나주	구름많음	3/11	진도	구름많음	6/11
완도	구름많음	4/12	전주	구름많음	3/9
구례	구름많음	1/10	군산	구름많음	2/9
강진	구름많음	2/12	남원	구름많음	1/9
해남	구름많음	2/11	흑산도	구름많음	8/11
장성	구름많음	2/10			

◇ 바다 날씨

시해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면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면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36	12:19	06:57	19:43
여수	07:40	21:36	01:52	14:46

◇ 주간 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	☁	☁	☁	☁	☁	☁
1/6	-3/5	-4/7	0/8	-1/9	0/11	2/11

◇ 생활지수

- 보통
- 감기
- 보통
- 뇌졸중
- 보통
- 미세먼지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방치된 묘지 70%(추정)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